

제16권 7호

2026. 4. 13~2026. 4. 26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국내 금융회사, 일본 금융회사를 넘어
- 이슈분석** 유럽發 자연자본 금융 빅뱅과 新 시장 대응방안
- 금융경영브리프** AI 금융시대, 더욱 중요해지는 고객 신뢰
Revolut, 은행 라이선스 기반의 글로벌 진출 본격화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예미(hmikim)
연구원 이시은(sieunyi)

논단

연구위원 김상진(sjkim)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지현(jihyunkim)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장예원(hwjang)
연구원 유승원(youth1)

금융지표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국내 금융회사, 일본 금융회사를 넘어
- 04 **이슈분석** 유럽궤 자연자본 금융 빅뱅과 新 시장 대응방안
- 08 **금융경영브리프** AI 금융시대, 더욱 중요해지는 고객 신뢰
 Revolut, 은행 라이선스 기반의 글로벌 진출 본격화
- 12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국내 금융회사, 일본 금융회사를 넘어*

김 상 진 연구위원

국내 금융회사는 그동안 일본 금융회사를 벤치마킹해 왔으며, 해외 진출, 요양 사업, 주주 환원과 디지털 분야가 대표적이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는 일본 금융회사의 Web3 비즈니스를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내 규제와는 별개로 해외에서 디지털자산 ETF를 출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은 국내 금융사에서도 고려해 볼만하다. 더 나아가 국내 금융회사는 일본 금융회사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넘어 VC, 결제 등 강점을 지닌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일본 금융회사, 국내 금융회사 성장 곡선의 기준점

국내 기업집단 내 제조사들이, 반도체,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기업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으로 오래 전부터 성장한 것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의 성장 속도는 다소 더딘 편이다. 오히려 국내 금융회사에게 일본 금융회사는 여전히 동경의 대상이다. “잃어버린 30년”, 장기화된 저금리와 내수 불황을 경험하고도 이를 극복해 자리 잡은 일본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회사에게는 좋은 교보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벤치마킹 대상 분야로는 대표적으로 해외 진출, 주주 환원, 요양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은 저금리 시기 규모 성장과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확대 시점에 일본 금융회사의 사례가 많이 언급되었다. 이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요양 사업이 국내 보험사 등에 허용되는 과정에 있어 일본 보험사 사례는 제도 도입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주주환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이슈로 부각하였을 당시 밸류업 프로그램 전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일본 주요 상장 금융회사의 자본배분 등 주주 환원 계획은 해당 프로그램의 모범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국내 금융사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되는 디지털 분야에서도 일본 플랫폼사의 지배구조 조정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본 플랫폼사는 중간금융지주를 통해 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여 실질적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인데, 이는 국내 플랫폼 계열 금융사에 유용해 보인다.

일본 금융회사는 국내 금융회사의 오랜 벤치마킹 대상

국내 금융회사는 다수 분야에서 일본 금융회사를 벤치마킹

빅테크 플랫폼 계열 금융회사의 중간 금융지주 활용도 국내에서 논의의 예상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일본 금융사의 Web3 비즈니스는 최근 부상한 벤치마킹 분야

Web3 분야에서 일본 금융회사는 선도적

디지털 분야 중 일본 대형 금융사의 Web3 비즈니스는 특기할 만하다. 디지털자산 중심의 Web3 비즈니스는 국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시작되는 분야로 일본 금융회사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자금결제법 개정 후 스테이블코인을 인가하는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 왔다. 이에 일본 금융사는 자사 계열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손님의 단순 가상자산 매매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Web3 생태계 전반에 본격적으로 참여 중에 있다. 바이낸스와의 스테이블 코인 협업(MUFG), USDC·JPYSC 출시(SBI Holdings), 디지털자산 운용사(3iQ) 투자(Monex Group)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글로벌 차원의 Web3 비즈니스를 본격 전개

특히 글로벌 차원과 주주환원 분야 내 Web3 비즈니스 연계는 국내 금융사와 플랫폼사가 함께 고려해 볼만하다. 보수적으로 자국에서 금융당국 인허가를 기다리며 사업을 준비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 내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디지털자산 ETF 출시 등)하는 한편, 나스닥에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Monex Group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파트너사의 가상자산인 XRP를 주주에 부여해 자사 거래소와 연계시켜 Web3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SBI Holdings의 지속적인 시도도 국내법 적용 가능 여부를 떠나 주주환원 차원에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회사도 일본 금융회사를 참고해 Web3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반면 국내 금융회사의 Web3 비즈니스 현황은 어떠한가? 인적자원 확보, 지분 투자를 포함한 생태계 구성에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움직임은 일본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사 대비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회사는 과거 토큰증권 등의 경험을 토대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외국인의 국내 가맹점 결제 등 디지털자산 비즈니스를 법 개정 논의 속도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져도 실제 적용에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까지 불확실한 요소가 상당 기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PoC(Proof of Concept)나 MOU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Web3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험과 이를 위한 투자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과거 국내 금융회사의 메타버스 투자 경험 등으로 실무자 차원에서는 Web3 생태계 대상 투자를 과감하게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탱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회사 내부 경영진의 안정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 국내 금융회사는 일본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 때 국내 금융회사의 일본 금융회사 벤치마킹은 과도한 수준을 넘어 같은 일본 금융회사에 유사한 오피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를 보인 적도 있었다. 이제 국내 금융회사와 일본 금융회사와의 관계는 벤치마킹을 넘어 대등한 관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가 일본 금융회사 대비 강점을 지닌 영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전개가 요구된다.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경영의 커버리지를 기존 은행 중심에서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VC가 공동으로 벤처투자펀드를 구성하고 실제 일본에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는 벤치마킹을 넘어 양국이 협력하는 좋은 사례이다. 정책당국의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와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일 공동의 자금을 기반으로 일본 지역 등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대상 VC 투자를 통해 수익 및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는 일본 금융회사와 결제 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가항공과 대중문화 확산으로 양국 간 교류가 새로운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서비스 범위는 자연스럽게 국내 손님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객, 광의로는 일본 손님에 맞춰 확대될 것이다. 기존 결제 비즈니스가 국내 여행객의 일본 내 결제 사용 확대를 중시해 일본 내 배타적인 가맹점 확보와 이에 따른 손님 혜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일본 여행객의 국내 결제 수요 대응과 함께 이와 연결된 여행, 플랫폼 등으로의 비즈니스 참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비즈니스에는 금융 외 업무 진출이 타 금융 업종 대비 비교적 용이한 카드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카드사의 업무 확대 등 정책 당국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오래 전 국내 금융회사는 아시아 선도 금융회사로의 도전을 꿈꿨다. 현재 안정적인 성장을 토대로 비용절감 등을 통한 수익성 및 주주환원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본 금융회사와의 자산규모, 시가총액 등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양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지금, 국내 금융회사는 단순 일본 금융회사 벤치마킹을 넘어 새롭게 판을 그리는 전략을 통해 아시아 수위로의 도약을 다시 꿈꿀 시기가 되었다. 

기존 한일 금융회사 간 관계를 전환할 시기

VC를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를 우선 고려

결제 분야에서의 손님 대상을 국내에서 일본 까지 포함할 필요

아시아 선도 금융회사를 꿈꾸며

유럽發 자연자본 금융 빅뱅과 新 시장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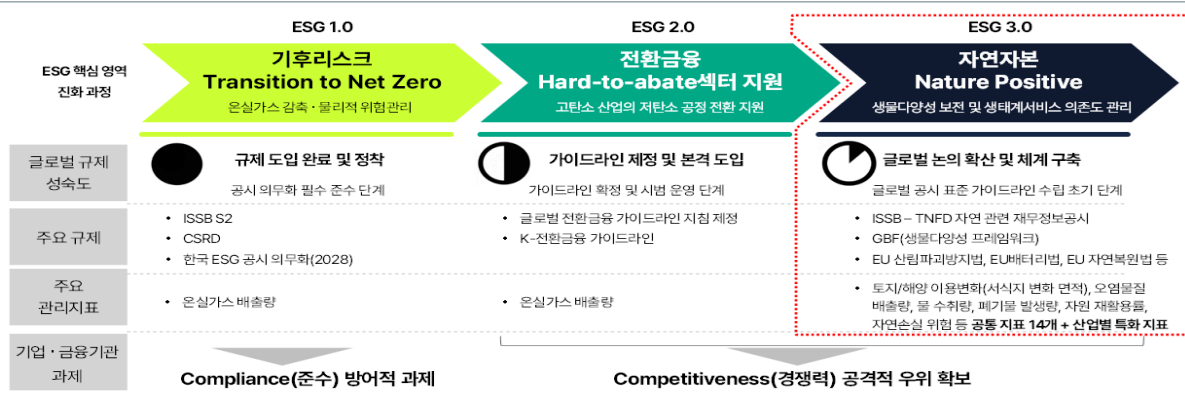
김지현 연구위원

ESG 패러다임이 탄소중립을 넘어 ‘네이처 포지티브’로 급변함에 따라 자연 훼손에 의한 리스크가 금융권의 신용·시장리스크로 직결되고 있다. 자연자본 관련 공시 요구는 증가되고, 특히 EU의 강력한 규제 시행으로 기업의 자연자본 관리 역량은 필수 생존 조건이 되었다. 글로벌 은행은 위성 데이터와 리스크 진단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솔루션으로 신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 금융권도 자연자본 리스크에 취약한 국내 기업의 네이처 포지티브 전환을 선도할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 ESG 패러다임이 탄소중립을 넘어 자연자본을 보전하는 ‘네이처 포지티브’ 단계로 급격히 진화

- ESG가 과거 온실가스 감축의 기후변화 대응 중심에서 최근 전환금융 시대를 넘어 자연 자원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자산화하는 자연자본 시대로 진입
 - 자연자본이란 자연을 경제 생산 활동에 필수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자산으로 보는 개념으로 광물 등 자원,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자산, 기후 조절 등의 생태계서비스로 구성
- 글로벌 GDP의 절반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어 자연훼손은 곧 공급망 붕괴로 직결되며 기후리스크보다 더 즉각적으로 기업을 거쳐 금융권의 신용·시장리스크로 전이 가능
- 이에 글로벌 규제와 투자기준은 이미 자연자본을 반영하기 시작해 기업 대응을 요구
 -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를 흡수 통합해 표준화 작업(2026년 발표 예정)에 착수하며, 향후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공시는 의무화될 전망
 - 기관투자자들은 ‘Nature Action 100’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생물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군과 100대 기업을 집중 관리하며 대상 기업에 자연손실 방지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TNFD 기반 공시를 요구

■ ESG 패러다임 변화 트렌드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특히 EU의 강력한 공급망 규제는 자연자본 관리를 필수 생존 조건으로 규정해 기업을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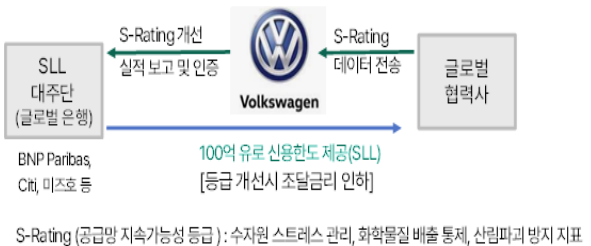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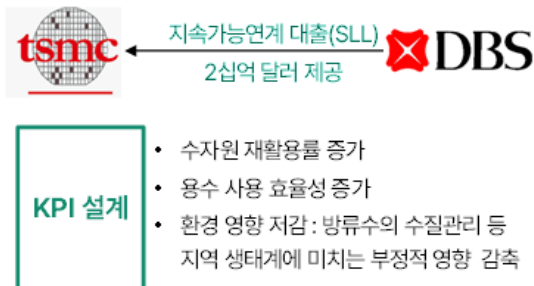
- EU규제는 개별 제품의 공급 원산지 위치정보와 탄소배출량 등 고도로 정밀한 데이터 증빙을 기업에 강제하고, 미준수 시 시장진입 자체를 즉각 차단함으로써 기업의 자연자본 관리 역량을 단순한 권고가 아닌 실질적인 필수 생존 조건으로 전환시키고 있음
 - 산림전용방지법(EUDR) : 소, 고무, 팜유, 목재, 콩, 카카오, 커피 등 7대 품목 및 파생상품 취급 시 공급 원산지 위치(위도·경도 좌표)와 생산일 제공 의무화, 산림 파괴와 무관한 입증 필수이며 미준수 시 EU 수출 즉각 제한(대기업·중견기업 2026년말 적용)
 - EU배터리법 : 배터리 모델별 탄소배출량 신고 및 공급망 실사(2025년), 배터리 생애주기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 도입(2027년),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2031년)
 - EU자연복원법 : EU 토지 사용자(EU내 생산·유통거점 등 보유 기업)에게 2030년까지 EU 육지/해양의 20% 복원 목표로 지원의무를 부여(2028~2029년)
 - 공급망실사법(CSDDD) : 기업 공급망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리스크 식별 및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유럽 공급망 내 퇴출 가능(2027년)
- 산림전용방지법과 배터리법 등은 산림파괴 방지를 위한 직접적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활동이 기업 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공급망실사법과 공시로 감시기능을 보완

■ 글로벌 은행은 기업의 규제 대응 속 혁신적인 자연자본 금융솔루션을 선보이며 신시장 선점에 박차

- 글로벌 은행은 기존 전환금융 지원용으로 사용되던 지속가능연계대출과 그린·블루본드 등 ESG상품에 자연자본 KPI를 추가하며 기업의 내이치 포지티브 전환 이행을 지원
 - DBS는 반도체기업 TSMC의 생산공정에 필요한 초순수 공업용수 소비 및 폐수 배출 등 자연리스크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연계대출 2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KPI로 수자원 재활용률, 용수 사용 효율성, 환경영향 저감 등을 설정
 - BNP Paribas, 미즈호은행 등은 폭스바겐의 공급망 통제를 위해 100억 유로의 신용한도와 연동된 자연리스크 KPI관리를 지원하며, 협력사는 폭스바겐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등급에 따라 금리조달 인하 혜택을 제공받음

■ TSMC의 수자원 리스크 감축을 위한 금융지원

■ 폭스바겐의 공급망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 금융지원



자료 : DBS

자료 : Volkswagen

- Societe General은 캐나다 선박회사 Seaspan에 7.5억 달러 규모의 블루본드를 발행해 친환경 선박 도입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기술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 넷제로(net-zero) 달성 목적의 탄소상쇄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구매는 자연 복원의 투자 니즈와 맞물려 최근 자연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자산화
 - 브라질 은행 Btg Patual은 마이크로소프트와 800만 톤의 탄소크레딧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 TIG(산림전문자산운용사)를 통해 산림 복원과 상업용 목재림 조성 추진
 - Rabobank는 농장의 환경 영향을 정량지표로 측정 및 표준화해 생물다양성 모니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농가에 임팩트 대출과 탄소제거 크레딧 프로그램 제공

■ 또한 전문조직 강화, 자연데이터 플랫폼 기반 리스크관리 고도화 등 전방위적 역량 확보에 총력

- 글로벌 은행은 생태학적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전문 조직 강화에 주력
 - 프랑스은행 Natixis는 ESG 전문 자산운용사 Mirova를 자회사로 편입해 탄소배출권 및 재생농업 펀드 등 자연 기반 솔루션 중심의 고수익 테마 상품을 직접 설계 및 운영
 - BNP Paribas는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와 제휴해 블루본드 등 해양보존 금융상품 관련 자연기반 리스크 평가 가이드를 자문받고 심사체계 반영 및 생태계 리스크를 관리
 - SC은행은 케임브릿지 지속가능성 리더십 연구소와 제휴해 자연 리스크 모델링을 구축하고, 금융자산의 자연손실 취약도를 정밀 측정
- MUFG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업종별 자연자본 의존도 및 영향도, 위치 기반 정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네이처 포지티브 전략을 수립 및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연계
 - JAXA(日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제휴해 고정밀 위성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자연자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성과 측정
- HSBC는 다차원적 리스크 분석을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연자본 리스크 민감 산업 대상 산업별 리스크관리 정책을 제정, 기존 기후리스크 여신투자 심사 프로세스에 통합
 - 팜유 등 산림파괴 민감 산업군 대상으로 과거와 현재 위성 이미지를 비교해 무단 벌채를 감지하고, 기업의 공장 등 정확한 좌표를 생물다양성 민감 지도와 겹쳐서 분석

■ HSBC의 위성 데이터와 원격 탐사 기반 데이터 교차 검증 및 리스크 진단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p>실시간 산림 파괴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감 산업(팜유, 팜프 등) 사업장 위성 감시 과거/현재 이미지 비교로 보호구역내 무단 벌채 감지(Starling, GW) 		<p>자산위치 식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고객의 공장/농장 좌표와 생물다양성 민감 지도 교차 분석 멸종위기종 서식지 인접 여부 경고 파악 <p>수자원 스트레스 및 오염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하천 식생지수 변화 관찰 사업장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 환경영향 평가 	<p>플랫폼/툴</p> <p>ENCORE (UN 산아 기관개발 툴)</p>	<p>평가범위</p> <p>산업별</p>	<p>핵심 데이터</p> <p>산업별 자연 리스크 의존도, 영향정량화</p>	<p>적용 사례</p> <p>철강 산업은 담수 의존도가 높다는 식의 업종별 리스크 프로필 자동 산출</p>
			<p>IBAT (위치 기반 생물다양성 민감도 데이터)</p>	<p>위치별</p>	<p>전 세계 보호 지역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통합 DB</p>	<p>대출 심사시 해당 프로젝트가 생태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지역에 있는지 점수화</p>
			<p>Nature Ratings (무디스, S&P)</p>	<p>기업별</p>	<p>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리 역량 평가 등급 및 TNFD 권고안 준수여부 평가</p>	<p>신용평가 및 기업 자연리스크 관리 체계 등급 부여에 직접 반영</p>

자료 : HS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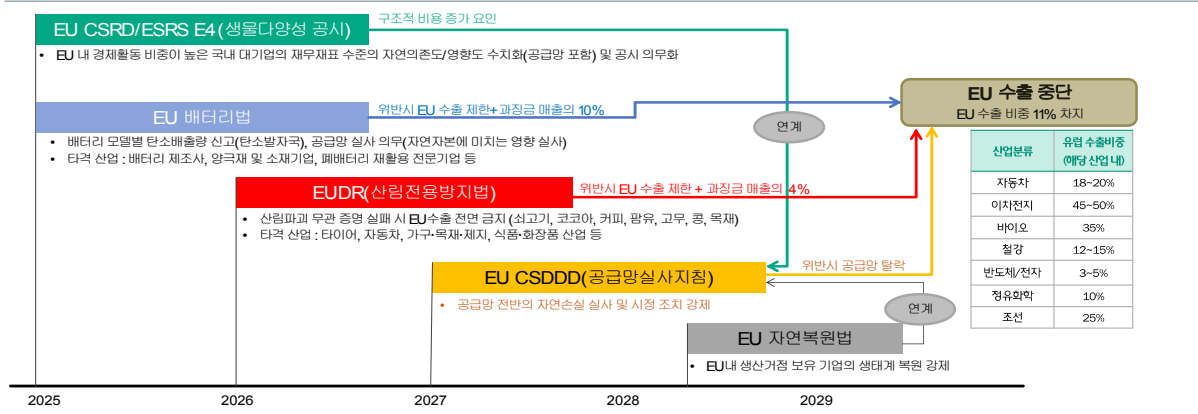
■ 국내도 수자원 및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한 산업군에 대한 ‘네이처 포지티브’ 금융 지원 시급

- 한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GDP의 28.9% 달하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구조를 띠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자연리스크와 규제 변화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유
-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가 주력 산업은 수자원 리스크 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및 원자재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사슬 리스크도 높아 기업의 핵심 수출 전선을 위협
 - 제조업 비중 구성 : 반도체·전자 25.4%, 자동차 11.2%, 화학 10.8%, 식음료 6.5% 등
- 국내 기업의 유럽 수출 비중은 약 11%이며, 유럽 내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기업도 다수로 유럽의 자연자본 관련 규제 대상에 노출되어 자산가치 하락 리스크가 높은 위험군도 상당
 - 유럽 수출 비중 : 이차전지 45-50%, 자동차 18-20%, 바이오 35%, 철강 12-15%, 반도체 3-5% 등
 - 자동차의 경우 유럽 EUDR 대응을 위해 타이어(고무)와 가죽시트(소)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조달처 추적과 친환경 인증 이력 등 공급망 플랫폼 및 규제 방어 체계 구축 필요
- 따라서 보이지 않는 Scope 3 공급망 하단의 지리정보 및 생태계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적 대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네이처 포지티브 금융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

■ 국내 금융회사도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네이처 포지티브 거버넌스 구축 및 전환 리더십 확보 필요

- 글로벌 금융회사는 이미 데이터 기반의 자연자본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나, 국내는 공시 중심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전방위적 역량 확보 시급
- 자연자본 전문가 영입 및 환경 전문기관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충 및 전문조직을 구축하는 등 자연자본 금융 실행을 위한 전문 거버넌스 확립 필요
- 또한 데이터 기반 자연리스크 진단 체계를 구축해 기후 위기와 자연자본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고, 기업의 네이처 포지티브 전환을 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체계화 필요

■ 유럽의 자연자본 관련 규제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AI 금융시대, 더욱 중요해지는 고객 신뢰

장혜원 수석연구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AI 활용이 Z세대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보편화된 가운데 소비자들은 재무관리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 추천, 이상거래, 신용평점 산출 등 백엔드 영역의 기능을 AI가 지원할 때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은퇴설계, 재정자문 등 복잡성과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인적 개입을 더 신뢰했다. 은행의 핵심 가치가 신뢰인 만큼 은행의 AI 도입은 고객 신뢰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전 세대에서 AI 사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재무관리에도 AI 활용이 본격화¹⁾

- 美 리서치업체 Big Village의 최근('26.2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²⁾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AI 활용은 Z세대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보편화
 - 세대별 AI 사용률은 Z세대(90%) 및 밀레니얼 세대(89%)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X세대(76%)와 베이비부머 세대(63%) 역시 높은 수용성을 보임
- 또한 재무관리에 AI를 활용하는 비중도 '24년 10%에서 '25년 55%로 크게 증가
 - 소비자들은 AI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 부문에서도 신속성, 초개인화, 예측 가능성, 상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상품 및 서비스 추천, 이상거래, 지출 추적, 신용평점 산출과 같은 백엔드 기능을 AI가 지원할 때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인간과의 상호작용만을 고집하는 소비자 비율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AI 기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은 증가
- 소비자들은 청구서 납부, 알림 설정, 거래 모니터링, 자금 이체 등 일상적인 금융 업무를 보조하는 AI 도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또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추천, 식단 계획, 운동 루틴 설계, 학습 등 오류 가능성이 낮고 위험도 제한적인 영역에서 AI 활용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특히 추천 및 루틴 설계 등은 AI 기반 도구만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

[1]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Consumer Inflection Point", TD Stories, 2026.3.24.

[2] 본 조사는 TD Bank의 의뢰로 Big Village가 2026년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은 18세 이상 미국인 2,504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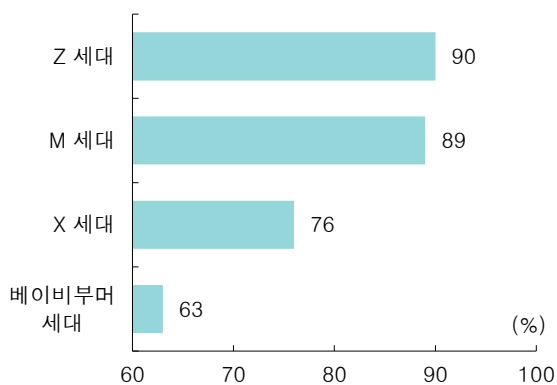
■ 그러나 은퇴설계, 재정자문 등 복잡성과 중요도가 높은 금융 의사결정 과정에서 AI가 인적 전문성을 대체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AI 활용은 매년 급증하지만, AI에 대한 신뢰 축적은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일수록 소비자는 인적 개입을 강하게 요구
 - 은퇴설계, 재정자문, 고객 서비스 문제 해결 등 중요한 사안에서 AI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신뢰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18%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름
 - 소비자들은 AI가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인적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에는 긍정적이나, 인간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 AI에 대해 강한 신뢰도를 표명한 응답자의 비율은 '25년 8%에서 '26년 15%로 2배 증가했지만, 신뢰수준은 여전히 가족·친구(45%)나, 은행(35%)을 하회

■ AI 시대 소비자들은 타 산업 대비 전통적인 은행업의 본원적 가치인 '신뢰'를 최우선시 하므로, 은행은 AI 활용에서 고객 신뢰도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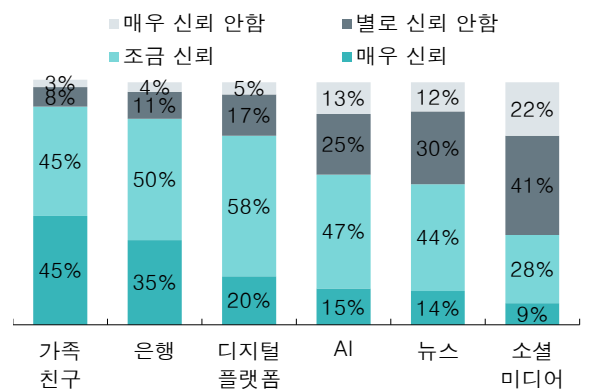
- 소비자들은 은행의 AI 활용에서 '고객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시(31%) 했으며, 그 다음으로 'AI 적용 시점 및 방식에 대한 투명성'(19%), 'AI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17%) 등을 선택
- AI 사용이 보편화되고 금융서비스 전반에 내재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강력한 보안체계,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가시적인 인적 개입을 기반으로 한 신뢰 형성을 중시
- 은행업의 핵심 가치가 '신뢰'인 만큼, 은행의 AI 도입은 해당 가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신뢰의 수준을 한 차원 격상시키는 변곡점이 되어야 함 📈

■ 소비자 세대별 AI 활용 현황(2026년)



자료 : TD Stories

■ 정보 출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2026년)



자료 : TD Stories

Revolut, 은행 라이선스 기반의 글로벌 진출 본격화

유승원 연구원

영국 Revolut는 최근 영국의 정식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데 이어 미국 국립은행 인가를 추진하며 글로벌 은행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이자이익으로 다변화하고 글로벌 슈퍼앱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또한, Monzo, Nubank 등의 글로벌 핀테크들도 은행업 진출을 확대하며 은행과 핀테크 간 빅블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은행은 데이터 기반의 상품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당국은 복합 리스크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Revolut는 '26.3월 영국 정식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데 이어 미국 국립은행 인가를 추진¹⁾

- Revolut는 신청 5년만인 '26.3월 영국의 은행업 인가를 취득한 데 이어 미국 지역 신입 CEO 선임과 함께 국립은행 인가(National Bank Charter)를 획득할 계획
 - '21년 영국 은행업 인가 신청 이후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미흡으로 약 3년의 심사 후 '24.7월 수신 등이 제한된 조건부 인가(Restricted License) 취득을 거쳐 최종인가 확보
- '25년부터 Revolut는 멕시코('25.10), 페루('26.4)에서 은행업 인가를 연이어 획득
 - 향후 프랑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은행업 인가 또는 현지은행 인수 등의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계획

■ Revolut의 글로벌 진출 확대는 글로벌 금융 슈퍼앱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

- Revolut는 2027년 중반까지 1억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30개국 이상의 신규 시장에 진출하며, 장기적으로는 100개국 이상에서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목표
 - 은행 인가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획득이 쉬운 결제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하는 '라이선스 사다리(Licensing Ladder)'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글로벌 진출
 - 인도('25.4), UAE('25.9)에서 결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글로벌 기반을 확대했으며 고객 수도 '24년 5,250만 명에서 '25년 6,830만 명으로 1년 새 약 30% 증가
- '25년 매출의 약 76%를 차지한 수수료 편중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자 은행업에 진출하여 이자이익을 확대하고 고객 락인(Lock-in)을 강화하려는 목적
 - 주거재 계좌를 유치하면 저비용 핵심예금을 대규모로 조달할 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환 송금, 주식, 가상자산, 여행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극대화

[1] "Revolut Launches UK Bank", Revolut, 2026.3.11

[2] "Revolut Files U.S. Bank Charter Application, Names New U.S. CEO", Revolut, 2026.3.5

■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권 내 은행으로 편입을 확대

- 핀테크 대상 글로벌 벤처투자 환경이 과거의 성장성 중심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명한 소수의 핀테크 기업에게 집중되는 기조로 재편
 - '25년 글로벌 벤처투자의 핀테크 투자 규모는 5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반등하였으나,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투자 기조가 심화되며 투자 건수는 전년 대비 23% 감소
- 핀테크 기업은 예대마진을 확보하여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수신 유치를 통한 조달비용 절감과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본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은행업에 진출
 - 英 챌린저뱅크 Monzo는 '25.12월 아일랜드 중앙은행 및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 은행 인가를 취득하고 아일랜드에서 먼저 1.6%의 수시입출금식 통장 등을 출시할 예정
 - 라틴아메리카 최대 인터넷은행 Nubank는 '26.1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미국 내 국립은행(National Bank)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고 북미 진출 본격화
 - 美 핀테크 PayPal은 중소기업 대출 강화를 위해 '25.12월 미국 유타 주 규제당국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산업은행(Industrial Loan Company)인 PayPal Bank의 설립을 신청
- 대형 글로벌 핀테크의 은행업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blur)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전망

■ 국내 은행 및 금융당국에서도 글로벌 핀테크의 은행업 진출 본격화에 대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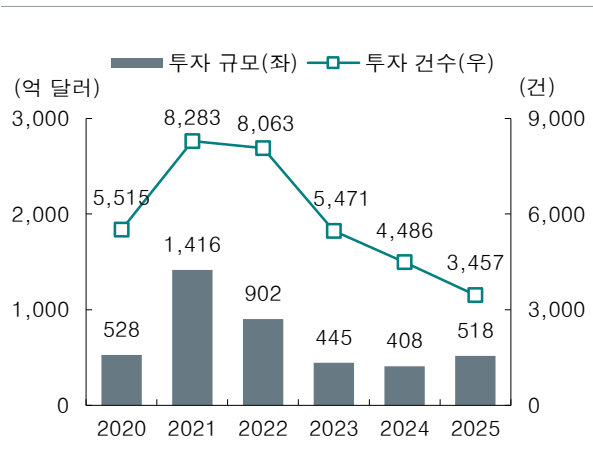
- 글로벌 핀테크의 은행업 진출로 맞춤형 여·수신 상품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은행들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상품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글로벌 핀테크의 진입에 대비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복합 리스크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 📌

■ Revolut 글로벌 진출 현황 및 계획

구 분	시점	국가	
은행 라이선스 취득	'26.4	페루	
	'26.3	영국	
	'25.10	멕시코	
은행업 진출 추진	진출계획 발표	'26.3	미국
		'25.9	남아프리카 공화국
	'25.9	프랑스	
	인가 신청	'25.10	콜롬비아
		'25.6	아르헨티나
현지은행 인수 추진	'25.6	아르헨티나	
	'25.6	아르헨티나	
결제 라이선스 취득	'25.9	UAE	
	'25.4	인도	

자료 : Revolut

■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 및 투자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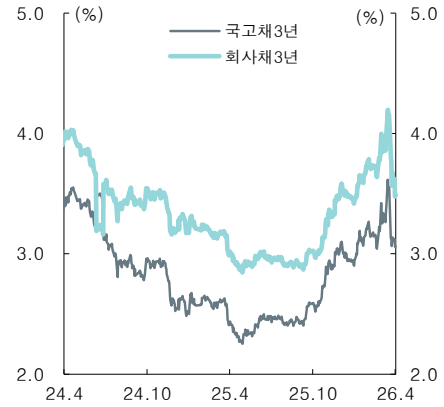


자료 : Crunchbase News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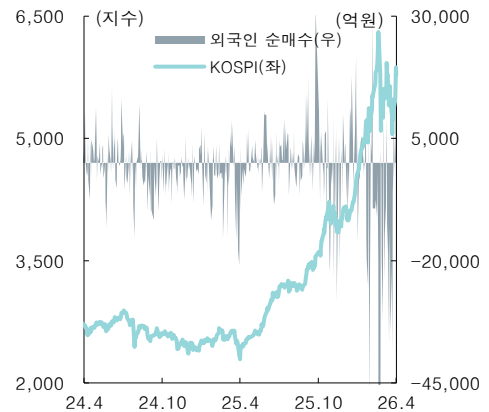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25월말	2.63	2.81	2.79	3.48	2.95	3.24
3월말	2.62	2.82	3.55	3.78	3.13	4.17
4월 3일	2.49	2.82	3.45	3.62	3.11	4.09
4월 6일	2.50	2.82	3.43	3.59	3.11	4.08
4월 7일	2.41	2.82	3.45	3.62	3.12	4.11
4월 8일	2.48	2.81	3.32	3.48	3.06	3.97
4월 9일	2.54	2.82	3.34	3.49	3.06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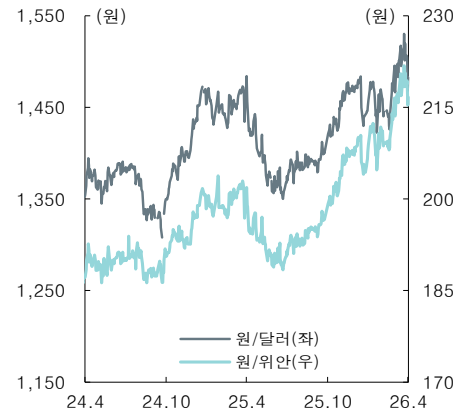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25월말	4,214.2	132,135	408	-4,886
3월말	5,052.5	298,377	1,163	-38,481
4월 3일	5,377.3	222,346	1,185	7,995
4월 6일	5,450.3	217,612	1,111	-1,564
4월 7일	5,494.8	237,194	990	3,950
4월 8일	5,872.3	363,070	933	19,453
4월 9일	5,778.0	334,734	1,026	17,189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4년말	1,472.5	934.1	201.4	1,522.7
'25월말	1,439.0	916.1	204.4	1,686.3
3월말	1,530.1	963.9	221.8	1,767.6
4월 3일	1,505.2	942.7	218.7	1,732.9
4월 6일	1,506.3	943.2	218.8	1,738.4
4월 7일	1,504.2	942.1	219.3	1,743.9
4월 8일	1,470.6	927.3	215.3	1,715.1
4월 9일	1,482.5	930.0	217.0	1,7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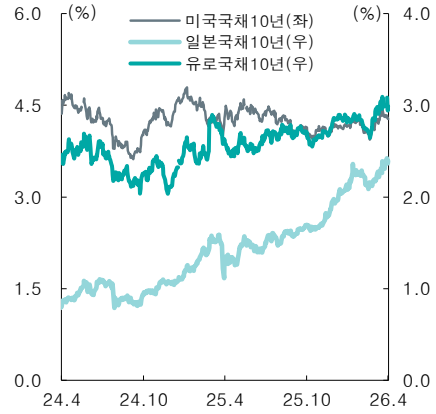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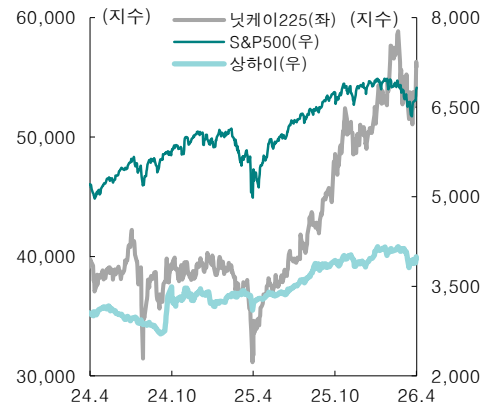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4년말	4.33	4.69	4.24	4.57	1.10	2.37
'25월말	3.64	4.01	3.47	4.17	2.07	2.86
3월말	3.64	3.73	3.37	3.94	2.12	2.64
4월 3일	-	-	-	-	2.39	2.99
4월 6일	3.64	3.67	3.85	4.33	2.42	-
4월 7일	3.64	3.67	3.79	4.29	2.42	3.08
4월 8일	3.64	3.67	3.79	4.29	2.37	2.94
4월 9일	3.64	3.67	3.77	4.28	2.39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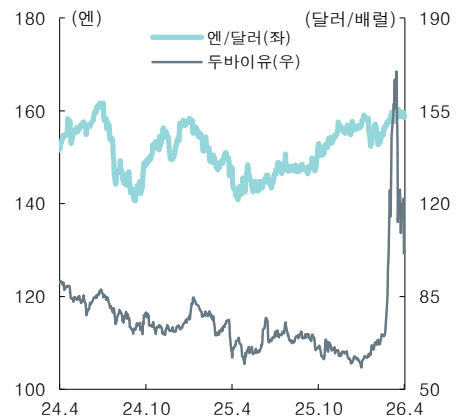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25월말	6,845.5	50,339.5	3,968.8	5,791.4
3월말	6,878.9	58,850.3	4,162.9	6,138.4
4월 3일	-	53,123.5	3,880.1	-
4월 6일	6,611.8	53,413.7	-	-
4월 7일	6,616.9	53,429.6	3,890.2	5,633.2
4월 8일	6,782.8	56,308.4	3,995.0	5,913.4
4월 9일	6,824.7	55,895.3	3,966.0	5,896.3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25월말	156.63	1.175	61.6	4,341.1
3월말	156.16	1.182	71.2	5,247.9
4월 3일	159.67	1.151	-	-
4월 6일	159.66	1.154	120.2	4,684.7
4월 7일	159.58	1.159	121.9	4,684.7
4월 8일	158.57	1.166	101.2	4,777.2
4월 9일	158.92	1.170	102.0	4,785.8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7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6년 4월 10일 인쇄

2026년 4월 13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7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